

What's
behind the
world's
smart
products? *

Digital DNA
from Motorola

Motorola - Digital DNA

정소영

전자신문 생활전자부 기자 / syjung@etnews.co.kr

우연한 기회에 받게된 기자상이 멋진 해의 출장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모토롤라의 고향이자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 우뚝 솟은 시카고의 마천루 빌딩숲을 둘러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Digital DNA라는 모토롤라의 새로운 모토를 체험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일주일 간의 취재여행은 그러나 출발 전부터 이미 내 손안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내 손엔 스타택7760이 들려있었으니까.

모토롤라가 주도면밀하게 마련한 모든 행사 일정. 이를테면 기념관과 공장 및 전시장 관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기업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주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방문한 것과 다를 게 뭐가. 각종 컴퓨터장비와 주변기기는 물론 자동차에까지 빠짐없이 자리잡은 모토롤라의 반도체 기술은 화려했지만 체험적으론 [너무 멀리] 있었던 것. 시카고의 아름다운 빌딩숲 아래서 짝튼 이같은 의문은 그러나 텍사스 오스틴 본 행사장에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다.

페이지 라이터. 행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날라드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경이로움을 맛봤다면 너무 지나칠까. 공중전화 박스도 찾기 힘든 허허로운 오스틴에서 페이지 라이터의 위력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주 최측과 취재진에게 지급된 이 작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모토롤라 Digital DNA를 몸으로 체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각국의 취재진들에게 이 조그만 기계는 더할 수 없는 편리함을 안겨줬다. 아침 저녁으로 일행의 안부를 묻고 세미나 일정을 체크하고 워크숍의 소감을 나누고 한가한 저녁시간의 티타임을 약속하는 우리들에게 모토롤라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Digital을 외치는 기업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것이 우리 곁 모든 문명의 이기를 구성하는 DNA로 자리할 것이라고 당당히 명명한, 자신만만한 기업은 흔치 않다. 모토롤라의 조금은 거만해보였던 이 명제가 작은 페이지 라이터 하나로 선명하게 인식되자 행사 초기 인텔의 '인텔 인사이트'와 비교를 일삼던 취재진은 입을 다물었다.

전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는 다국적기업들을 취재할 때마나 행사규모나 진행방식 및 기술 축적도에 압도당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모토롤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중동부의 시카고에서 남동부의 오스틴까지 수많은 취재진을 이끌고 다니며 모토롤라가 보여주려 했던 건 바로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모바일의 혁명이 아니었을까. 더구나 핸드폰에서 이룬 성과를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산업에서 다시 한번 꽃피우겠다는 야심은 참으로 대담무쌍한 것이었다. 행사 일정 중 마지막 하루를 온통 채웠던 워크숍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도 디지털 자동차였던 건 물론이다. 자동차 산업의 합종연횡은 이미 세계적인 물결을 이루고 있다. 이제 모토롤라는 전세계인들의 손에 심었던 Digital DNA를 자동차에 심으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인텔의 성공을 기술이 아니라 마케팅의 승리로 이야기하곤 한다. '인텔 인사이트'라는 간단한 문구로 일반인들의 뇌리속에 강한 이미지를 심었던 덕분에 인텔은 컴퓨터 산업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모토롤라의 Digital DNA는 어쩌면 인텔이 컴퓨터 산업에서 이룬 성공을 전 산업 분야에서 일구려는 야심찬 계획에 다름아니다. 모토롤라는 이미 수없이 많은 산업장비와 각종 기계장치에 수백만 가지가 넘는 트랜지스터를 공급하고 있으니 허풍은 아닌 셈이다. 시카고와 오스틴, 일견 대조적으로 보이는 두 도시를 오갔던 것은 어쩌면 Digital DNA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 '모토롤라 에브리웨어'를 확인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KCRC**